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 개막

글로벌 배터리 기업·기관 집결… 지속가능 미래 생태계 모색

이강덕 포항시장 등 500여명 참석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부스 운영
“포항, 세계 배터리 산업 허브 육성”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International Battery Expo 2025 Pohang)’이 지난 3일 포스텍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경북 최초의 글로벌 배터리 산업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사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재)포항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경북포항이차전지산업기업협의회, 노르딕 무역투자대표부가 후원했다.

개막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휘·이만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정병준 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를 비롯



‘국제 배터리 엑스포 2025 포항’이 포스텍 대학체육관에서 3일 개막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휘·이만희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의장, 정병준 에너지머티리얼즈(주) 대표 등 산학연관 관계자가 개막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포항시

해 산·학·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 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CTO, 홍영준 포스코퓨처엠 부사장 등 국내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들이 개막 퍼포먼스를 함께하며 엑스포의 시작을 알렸다. 또한 독일·노르웨이·스웨덴 등 주요 기술협력국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기원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는 김제영 LG

에너지솔루션 CTO가 ‘혁신을 이끄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략’을 주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메인 행사장인 포스텍 대학체육관 전시장에는 ▲특별전시존 ▲소재·부품존 ▲장비존 ▲기술·사업화존 ▲자원순환존 ▲서비스존 ▲산학협력존 등 8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기업·학교·연구소 등 36개 기관이 70여 개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특별전시존에서는 포항을 대

표하는 앵커기업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이 각각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역량을 상징적으로 선보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엑스포는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시하는 글로벌 산업 교류의 장으로, 포항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포항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배터리 산업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전남)=이태호 기자 eoqh7505@

대구시

8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팔 걷어

대구시는 3일부터 이틀간 인터불고 엑스포에서 ‘2025 외국인 환자 유치 비즈니스 페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9개국 16개 해외바이어(의료기관·의료관광업체·온라인 플랫폼 등)와 대구를 대표하는 37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이 참가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일본 대표 미용·의료 플랫폼, 카자흐스탄·베트남·몽골 등 업체, 대구지역 병원, 지역 유치 사업자 등이 일대일 상담과 의료기관 및 웰니스 캠퍼투어를 실시했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영덕군

7일~9일 ‘물가자미축제’ 진행

영덕 가을바다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수산물 축제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제19회 영덕 물가자미축제’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영덕 축산항 일원에서 개최된다.

영덕군이 주최하는 이번 물가자미축제는 단순한 수산물 소비 행사를 넘어, 체험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여촌문화형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축제 현장에 대형 솟불 그림이 설치된 ‘씨푸드 그릴존(Seafood Grill Zone)’이 운영돼, 관람객들이 신선한 물가자미와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울산시, ‘AI 수도’ 경쟁력 알린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
‘AI 수도 울산 주제’ 전시관 운영

울산시(시장 김두겸·사진)는 국내 최대 지역 정책 박람회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CO) 일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17개 시도와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구호(슬로건)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행사는 19일 오후 2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28개의 정책·학술회의(컨퍼런스)가 이어진다.



울산 전시관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을 주제로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상(비전)과 전략을 소개하고,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등을 선보인다. 팔도 미식회, 팬상품(굿즈) 전시와 울산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울산의 산업·관광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현장 여행(투어)과 문화관광 여행(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밖에 울산 특색을 담은 체험·판매 행사,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푸드)트럭 등 울산 이야기(스토리)마당과 축구, 농구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울산 스포츠 도전(챌린지)’ 등도 마련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내달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내달 1일~5일, 벅스코에서 진행

부산시는 전 세계 도핑방지 정책을 논의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벅스코에서 진행된다.

총회에는 전 세계 191개국 도핑방지 관계자 약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국내외 스포츠계의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위틀드 반카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종목별 국제연맹 대표 등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이 참



세계도핑방지기구 홍보 영상. /부산시

석한다. 특히 코번트리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시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총회를 만들기 위해 사전 홍보영상 송출과 개최식 당일 현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시는 이날부터 양기관의 공식 캐릭터 ‘부기’와 ‘톤톤’이 함께한 유튜브 홍보영상을 각 기관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북도, ‘경북형 글로벌 대학’ 사업 공모

내달 5일 17시까지 신청 접수

경북도는 지역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 및 도의 7대 전략산업 방향과 연계한 ‘경북형 글로벌대학’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100년대학육성(K-IVY) 프로젝트’의 단위과제로 기획됐으며, 정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앞당겨 시행된다.

‘경북형 글로벌대학’은 총 2개 분야,

3개 트랙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중심 글로벌대학’ 1개교와 ‘경북 전략산업 글로벌대학’ 2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내달 5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며, 최종 선정된 대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매년 50억 원씩, 최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의 특화 역량을 중심으로 AI 및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대학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신보, ‘2024년 보증사업 평가’ 1위

부산신용보증재단(이하 부산신보)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2024년 보증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지역신보 가운데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부산신보는 이번 평가로 연간 약 66억 8000만원의 재정 효과를 거뒀다.

중기부의 지역신보보증사업 평가는 지역신보의 연간 보증 운용 실적을 평가해 신용보증의 질적 향상과 계획적 보증운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재단은 역대 최대 출연금 687억원 확보, 총보증 공급 누적 100만 건 달성,

전국 최저 보증료를 운용, 17개 지역신보 중 신규 보증 및 사고 관리 생산성 최상위 수준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차 보전 RPA 도입, 역대 최대 이차 보전 자금 지원, 고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업점 2곳 신설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2024년 보증사업 평가’를 통해 재단은 보증잔액 3조 500억원 기준, 최하위 지역신보 대비 연간 재보증료를 32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부산=이도식 기자